

인간은 대인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 철학자 Aristoteles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통해 강조된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시키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구성체다.

초기 성인기 때 대인관계형성이 가장 활발하지만 각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유아기 때는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의 양육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는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는 또래 아동들과 초보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층 더 복잡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로, 가족관계보다는 교우관계가 주요하게 자리 잡게 된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이전의 대인관계 양상과 현저히 달라지며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청년후기에는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장동료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며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장년기에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최고 수준에 오르면서 상급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노년기 대인관계는 폭이 좁아지지만 대신 가족관계에 의한 의존도가 증대되는 시기이다(권석만, 2004). Erickson(1950, 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특히 초기성인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다.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이 주요과제이며 이 시기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성인애착 연구의 초기에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통해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조영미, 2012). 더불어,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유아기의 애착 유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성인기의 애착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대다수의 연구가 이에 동의한다. Ainsworth, Blehar, Water와 Waller(1978)는 애착 관계에 있어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Collins와 Read(1990)는 아동과 양육자들의 관찰을 통해 안정 애착(secure), 불안/양가 애착(anxious/ambivalent), 회피애착(avoidant)이라는 세 가지 구분되는 애착 유형을 확인하였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신뢰롭고 우호적이며 긍정정서를 가지고 있다. 불안/양가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타인에게 몰두함으로써 사랑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회피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사랑을 신뢰부족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한다(Hazan, Shaver, 1987).

Horney(1992)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아이가 느끼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고,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안전감을 위협받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는 것이다. 안전감이 만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Horney는 이 근본적 불안을 사랑이 없고 공격적이며 두려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외롭고 무력하고 지극히 작은 존재로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근본적인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은 세 가지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설명한다. 첫째, 사람들에게 향함(moving toward people)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순종적인 성격(compliant

personality)을 가진 사람들이며 타인에게 인정 받고 보호받고 싶은 강한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둘째, 사람들에게 맞섬(moving against people)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격(aggressive personality)을 가진 사람들이며,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 셋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moving away from people)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고립적인 성격(detached personality)을 가진 사람들이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자급자족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은둔적인 사람들이다. Horney(1992)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이러한 세 가지 경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경향성 중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강박적으로 하나의 우세한 경향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이회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2006에서 재인용).

Bowlby(1969)는 애착이론이 대인관계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 중 하나가 '애착'이며 이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 또한 많은 편이다(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Briere & Runtz, 1988; Locke, 2008). 국내 많은 연구자들도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밝혔다(예, 박영주, 2005; 박장희, 조운수, 2006; 강수진, 최영희 2011; 김은화, 2011; 박봉수, 2014). 성인 애착을 살펴보는 것은 곧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으며, 현재의 대인관계 유형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연규, 2013).

생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수치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Tangney & Dearing, 2002; 황지선, 2013에서 재인용). 내면화된 수치심은 초기 주요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관계를 통해 생겨나며(Cook, 1987), 초기 주된 양육자의 훈육방식과 많은 관련이 있다(이연규, 2013). Tomkins(1963)은 인간행동의 주된 동기는 감정(affect)이며, 그 중 수치심은 애착관계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실제로 타인에 의해 판단 받는 것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자기-비하적 반응이며 불쾌한 감정반응이다(Ausubel, 1955). 수치심은 크게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특질 수치심(trait shame)으로 설명한다. 상태 수치심은 어떠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감정으로 겪는 것을 일컫고, 특질 수치심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표현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체성의 핵심적으로 만성적인 측면으로서 극심하고 강렬한 수치심으로 묘사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일시적으로 때때로 극심한 상태의 수치심과는 구별된다(Spero, 1984).

수치심과 죄책감의 특징을 설명한 사적 경험-공적 경험(private experience-public experience) 이론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느끼게 되는 공적 경험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는 경향이라고 보았다(Ausubel, 1955; Benedict, 1964; 이유정, 2011에서 재인용).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느낌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내면화과정을 거치면서 일

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의식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과도 연결된다(Lewis, 1992; 이유정,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방어하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수치심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인해 자신감의 부족, 존재에 대한 부정적 감각,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켜 자기개방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것과 관련 있다(Yourman, 2000; 강지연, 유성경, 2006; 손승희, 2005; 이유정, 2012에서 재인용).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방어하게 된다(Bradshaw, 1988).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 및 외적인 표현성이 유의하게 낮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은 유의하게 높았다(이지연, 200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단서와 의사소통을 쉽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일을 떠올리며,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에서 모욕이나 상처를 입는다(Schore, 1994).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취약하며, 대인관계문제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다(Gilbert, Allan, Goss,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최임정, 2009; 안봉화, 2011).

Bowlby(1982)의 애착이론은 정서조절(affect

regulation)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체계 중 하나이다. Bowlby(1973)는 중요한 대상과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애착과 관련된 정서조절양식이 다르다고 하였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고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적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대인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은 다섯 가지 상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호작용 할 의사를 가지고 지향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메시지의 쌍방향 상호교환을 특징으로 보인다(김후자, 김정남, 김영숙, 심정자, 서길희, 20001).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할 의사는 있으나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인 정서표현 양가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정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므로 정서표현의 억제와 의사소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과 박수애(2003)는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Mongrain와 Vettese(2003)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약화시키고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감정들에 손상을 입힌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왔다(변영진, 2005; 안희애, 2006; 장정주, 김정모 2008; 김

준홍, 2009; 한경희, 2012; 정혜진, 2014; 이선화,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구조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Brennan 등(1998)은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애착을 범주가 아닌 연속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기존의 연구 보다 성인애착이라는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더욱 높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성인애착에 대한 현대 모델들은 두 개의 연속적인 차원(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는 추세이다(Locke, 2008). 또한 Mikulincer와 Shaver(2003)는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은 불안정에 대한 경험과 대처에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ennan 등(1998)의 제안에 따라 성인애착을 불안애착 차원(attachment anxiety)과 회피애착 차원(attachment avoidanc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불안애착 차원은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회피애착 차원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Berry, Wearden, Barrowclough, & Liversidge, 2006). 또한 불안애착 차원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 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며, 회피애착 차원은 친밀함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함을 특징으로 한다(김성현, 2004).

박영주(2005)의 연구에서 불안애착 유형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유형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애착 차원은 헌신성을 제외한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을 보였다. 박장희와 조윤주(2006)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유형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애착 유형은 대인관계문제 하위 영역 중 '비사교성', '불신-냉담'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보아 성인애착의 차원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ennan 등(1998)가 분류한 성인애착의 차원(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에 따라 Horney의 대인관계 이론(Horney, 1942)에 입각한 대인관계문제 유형 중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에 따라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을 형성한 성인들은 수치심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내면화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정서표현을 하는 것에 양가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겠으며, 애착 유형에 따라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상이한 대인관계문제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불안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 향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회피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

의 관계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회피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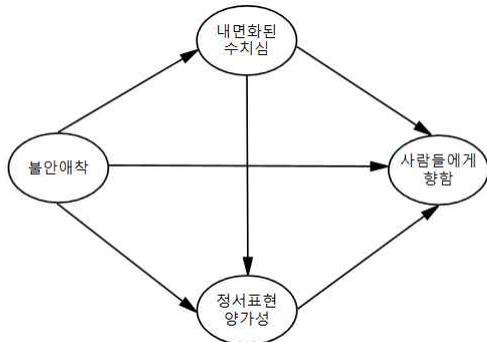


그림 1. '불안애착-사람들에게 향함'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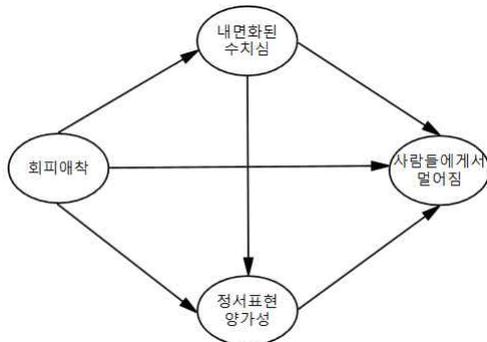


그림 2. '회피애착-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연구모형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보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기

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본 연구의 계획서(설문지포함) 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승인받은 번호는 'GIRB-A14-Y-0048'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리서치회사를 통해 전국의 일반인 총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응답 시간이 짧은 순으로 약 3%의 데이터와 일정구간을 한 번호로 응답한 데이터는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제거하였고, 총 483명이 남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outlier)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전체 표본의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Z 점수)로 변환하였다. 평균으로부터 3 표준편차(±3)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가진 사례를 이상치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남은 총 44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ECR)는 독립된 두 직교차원(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으로 성인애착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Brennan & Waller(2000)이 개정한 ECR-R를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을 사용하였다. ECR는 로맨틱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ECR-R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인애착을 측정할 수 있다. '불안애착 차원'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버림받는다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 '회피애착 차원'은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7점 평정척도이고, 각 차

원 당 문항수는 18개로 총 36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을 각각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고, 문항묶음(Item parceling)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Cronbach's α 는 .91,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 Cronbach's α 는 각각 .92, .88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

본 연구에서는 Cook(1987)이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를 개발하고, 이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ISS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척도(Rosenberg, 1965)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평정척도이며 자존감 척도를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 등(2005)이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결과, '부절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이라는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을 제외하였다. 전체 Cronbach's α 는 .91, '부절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Cronbach's α 는 각각 .87, .86, .77, .71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 등(1990)이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AEQ-K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상반되는 목표들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거나 억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AEQ-K는 총 21문항으로 이뤄진 5점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을 제외하였다. 전체 Cronbach's α 는 .89, '자기-방어 양가성', '관계-관여 양가성'의 Cronbach's α 는 각각 .88, .78이었다.

대인관계문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Horowitz, Rosenberg, Bear, Ureño, Villaseñ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문제검사(IIP)와 Alden, Wiggins,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IIP-O)를 바탕으로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이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단기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KIIP-SC는 각 하위요인 당 5문항씩 총 40문항이며 5점 평정척도이다.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관여(NO)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은화(2012)의 연구와 같이 Horney의 대인관계 이론(Horney, 1942)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3개의 하위영역(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하위 척도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향함과 냉담, 사회적 억제 하위 척도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만을 연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

을 제외하였다. 전체 Cronbach's α 는 .89,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Cronbach's α 는 .88, .91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와 AMOS 21.0를 사용하였다. PASW Statistics 18.0를 통해 자료점검, 빈도분석, 척도의 신뢰도, 변인 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로 평가하였다.

둘째,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하였다. 자료의 정상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AMOS 21.0을 통해 각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분석

(SEM)을 통해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변인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모든 변인은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 향함($r=.69, p<.01$)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66, p<.01$)보다 더 상관이 높고, 회피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r=.50, p<.01$)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1).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urran, West & Finch(1996)의 기준에 따라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SPSS에서 보고되는 첨도는 3을 미리 빼고 보고한 값이기 때문에

표 1.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 | | 1 | 2 | 3 | 4 | 5 | 6 | M(SD) |
|---|------------|-------|-------|-------|-------|-------|---|--------------|
| 1 | 불안애착 | - | | | | | | 58.86(15.57) |
| 2 | 회피애착 | .27** | - | | | | | 69.48(13.15) |
| 3 | 내면화된 수치심 | .64** | .29** | - | | | | 43.83(11.55) |
| 4 | 정서표현 양가성 | .57** | .30** | .42** | - | | | 53.00(9.42) |
| 5 | 사람들에게 향함 | .69** | .18** | .55** | .60** | - | | 39.28(8.60) |
| 6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66** | .50** | .52** | .47** | .68** | - | 38.32(9.10) |

N=441 ** $p<.01$

침도를 해석할 때에는 3을 더해서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Kline, 2005; Tabachnick & Fidell, 2007; 배병렬,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적 연구모형을 측정모형으로 전환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확인되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검증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측정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 추정방법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에 따르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은 수집된 자료를 표본으로 가정하므로 더 현실적이며 요인의 개수에 대해 총체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 추정방법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χ^2 는 모델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 GFI(goodness-of-fit-index)는 관측행렬과 재생행렬 간의 잔차자승합의 비율에 기초한 지수로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90 이

상이다.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과 대인모델의 비교를 위해 모델의 간명도(즉, 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것이며, 권장 수용수준은 .90 이상이다(배병렬, 2011).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홍세희, 2000),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하지만 CFI는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홍세희, 2000).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SRMR은 공분산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것으로 .08 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차원-사람들에게 향함’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8, N=441)=202.40, p=.000, GFI=.930, TLI=.929, CFI=.948, SRMR=.050, RMSEA=.086(90\% \text{ 신뢰구간 } .074\sim .098)$ 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 차원-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38, N=441)=134.78, p=.000, GFI=.948, TLI=.945, CFI=.962, SRMR=.054, RMSEA=.076(90\% \text{ 신뢰구간 } .062\sim .090)$ 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멀어짐이라는 각 잠재변인에 대해

설명하는 측정변인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C.R. > 1.96$)을 보이고 있으므로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구조모형 검증

조현철, 강석후(2007)에 따르면 문항묶음은 통상 측정지표가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다수 항목을 구성개념별로 둘, 셋, (때로는 하나, 넷) 등으로 묶은 다음 각각 합산하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문항묶음 (parcels)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문항 묶음은 보다 적은 모수를 추정하는 결과를 낳으며 표본 크기 비율에 더 최적의 변인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모수추정이 가

능하다(Bagozzi & Edwards, 1988; Bagozzi & Heatherton, 1994).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은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므로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값이 유사하게 묶이도록 문항을 나누어 임의로 3개의 하위요인을 만들었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차원-사람들에게 향함'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49, N=441) = 203.08, p = .000, GFI = .930, TLI = .931, CFI = .948, SRMR = .050, RMSEA = .085$ (90% 신뢰구간 .073~.097)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 차원-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38, N=441) = 134.78, p = .000, GFI = .948, TLI = .945, CFI = .962, SRMR = .054, RMSEA = .076$ (90% 신뢰구간 .062~.090)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므로 각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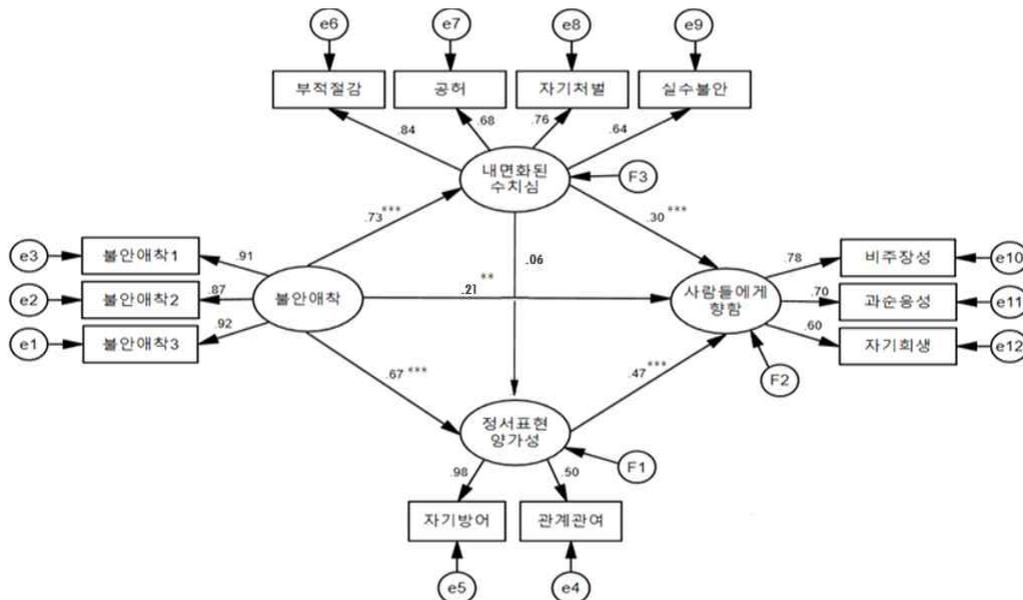


그림 3. '불안애착-사람들에게 향함' 구조모형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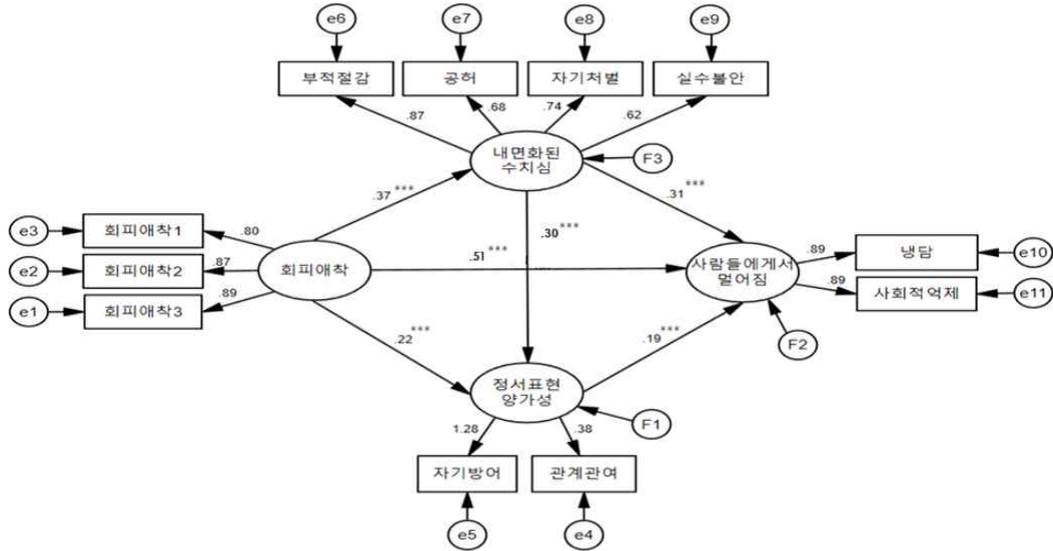


그림 4. '회피애착-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구조모형의 경로

표 2. '불안애착-사람들에게 향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 B | β | S.E | C.R. | p |
|---------------------|-----|---------|-----|-------|-----|
| 불안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68 | .73 | .04 | 15.43 | *** |
| 불안애착 → 정서표현 양가성 | .91 | .67 | .06 | 16.32 | *** |
| 불안애착 → 사람들에게 향함 | .12 | .21 | .05 | 2.27 | ** |
| 내면화된 수치심 → 사람들에게 향함 | .18 | .30 | .04 | 4.22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사람들에게 향함 | .20 | .47 | .04 | 5.26 | *** |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08 | .06 | .10 | .83 | .41 |

** $p < .01$, *** $p < .001$

표 3. '회피애착-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 B | β | S.E | C.R. | p |
|-----------------------|-----|---------|-----|-------|-----|
| 회피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44 | .37 | .06 | 6.92 | *** |
| 회피애착 → 정서표현 양가성 | .48 | .22 | .08 | 6.07 | *** |
| 회피애착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40 | .51 | .04 | 11.08 | *** |
| 내면화된 수치심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21 | .31 | .03 | 6.59 | *** |
| 정서표현 양가성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07 | .19 | .02 | 3.28 | *** |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56 | .30 | .07 | 7.94 | *** |

*** $p < .001$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 그림 4, 표 2, 표 3과 같다.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불안애착 차원-사람들에게 향함’ 구조 모형 경로 중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이르는 직접경로($\beta=.06, p < .05$)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과(불안-회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검증과 bootstrap 검증이 많이 쓰인다. Sobel의 검증절차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표준오차의 문제가 제기된다. 부트스트랩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이경석, 2014). 부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자료($N=441$)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로 부트스트랩 수는(number of bootstrap) 500 또는 1000을 한다(cheung & Lau, 2007).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수는 1000으로 하고 신뢰구간은 95%로 부트스트랩의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향함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95% 신뢰도 수준에서 .45-.63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였고($\beta=.53, p < .05$),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eta=.21, p < .05$).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6, p > .01$).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 사이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순차적인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beta=.18, p < .05$),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beta=.51, p < .05$). 애착회피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beta=.11, p < .05$),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beta=.22, p < .05$).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며($\beta=.06, p < .05$),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beta=$

표 4. 사람들에게 향함에 대한 각 변인들의 효과분해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불안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73** | - | .73** |
| 불안애착 → 정서표현 양가성 | .67** | - | .67** |
| 불안애착 → 사람들에게 향함 | .21** | .53** (.45~.63) | .74** |
| 내면화된 수치심 → 사람들에게 향함 | .30** | - | .30** |
| 정서표현 양가성 → 사람들에게 향함 | .47** | - | .47** |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06 | - | .00 |

** $p < .01$

표 5.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대한 각 변인들의 효과분해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회피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37** | - | .37** |
| 회피애착 → 정서표현 양가성 | .22** | .11** (.09~.13) | .33** |
| 회피애착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51** | .18** (.16~.20) | .69** |
| 내면화된 수치심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31** | .06** (.04~.08) | .37** |
| 정서표현 양가성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19** | - | .19** |
|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 양가성 | .30** | - | .30** |

** $p < .01$

.31, $p < .05$).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beta = .30$, $p < .05$). 그러므로 회피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불안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 함함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매개 경로가 합쳐진 부분매개 모형이다. 회피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이르는 간접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매개 경로가 합쳐져 있을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 모두를 매개하는 이중 경로가 합쳐진 부분순차매개모형이다. 이러한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의 경우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와 전체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 대해 별도의 bootstrap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전체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MOS를 통해 별도로 특정간접효

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보아야 한다.

특정간접효과의 검증

특정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이 사람들에게 함함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B = .13$, $p < .01$). 이 사람들에게 함함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 = .18$, $p < .01$)(표 6).

회피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B = .09$, $p < .01$), 회피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B = .03$, $p < .01$). 회피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B = .02$, $p < .01$)(표 7).

표 6. 사람들에게 향함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특정 간접효과

| | <i>B</i> | <i>p</i> |
|----------------------------|----------|----------|
| 불안애착 → 내면화된 수치심 → 사람들에게 향함 | .13 | .001** |
| 불안애착 → 정서표현 양가성 → 사람들에게 향함 | .18 | .002** |

** $p < .01$

표 7.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의 특정간접효과

| | <i>B</i> | <i>p</i> |
|-----------------------------------|----------|----------|
| 회피애착→내면화된 수치심→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09 | .001** |
| 회피애착→정서표현 양가성→ 사람에게서 멀어짐 | .03 | .001** |
| 회피애착→내면화된 수치심→정서표현 양가성→사람들에게서 멀어짐 | .02 | .001** |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불안정한 애착임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안정애착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의 변인들을 찾아 변화를 주었을 때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보다 사람들에게 향함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회피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 향함보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안애착 차원이 대인관계문제의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요인 순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회피애착 차원은 대인관계문제의 사람들에서 멀어짐, 사람들

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순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박봉수, 2014)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불안애착 차원-사람들에게 향함’ 연구모형에서 불안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 향함에 직접경로가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이었고, ‘회피애착 차원-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연구모형에서 회피애착 차원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직접 경로 역시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을 보임으로써 연구 가설 1, 2가 모두 지지되었다. 즉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자체만으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힌 결과들과 일치하였다(Bowlby, 1969; Horowitz et al, 1993; Briere et al 1988.; Locke, 2008; 박영주, 2005; 박장희 등, 2006; 강수진 등 2011; 김은화, 2011; 박봉수, 2014).

둘째, 불안애착 차원,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람들에게 향함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순차적인 매개는 보이지 않았다. 즉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모형은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불안애착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직접경로도 유의하였다. 즉, 불안애착 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불안애착 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더 높아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대인관계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라고 가정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으며, '불안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중 매개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회피애착 차원,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 양가성, 사람들에게 멀어짐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피애착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멀어짐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포함하고, 회피애착 차원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즉,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겠고, 이로 인해 정서표현 양가성도 더욱 높아짐으로써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자하는 대인관계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피애착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라는 가정한 가설 4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의 차원에 따라 다른 대인관계문제 유형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Brennan 등(1998)에 따르면,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애착을 범주가 아닌 연속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기존의 연구 보다 성인애착이라는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더욱 높다는 결과를 밝혀냈음에도 국내에서는 성인애착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인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을 각각 새로운 문항묶음(Item parcels)으로 만들어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Horney의 대인관계이론(Horney, 1942)을 적용하여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 SC)에서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관련성이 있었던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냉담, 사회적 억제 하위 척도만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다른 대인관계문제 유형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둘째,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매개하는 변인을 더 탐색하였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많이 밝혀져 왔었다(Bowlby, 1969; Medinnus, 1965; Horowitz et al, 1993; Briere & Runtz, 1988.; Mikulincer, 1988; Hazan, Shaver, 1994; Lopez, Gormley, 2002; Wei et al, 2005; Berry et al, 2006; Locke, 2008; 강수진, 최영희

2011; 김은화, 2011; 박봉수, 2014). 또한 각각의 경로들에 대한 선행연구, 즉,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모형에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탄탄한 편이다(Gilbert et al 1996; Mongrain 등, 2003; 이인숙, 최해림, 2005; 김민경, 2008; 이지연, 2008; 김정문, 2010; 이유정, 2011; 이연규, 2013). 하지만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들의 효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연구한 것은 유일하다.

셋째, 불안애착 차원(회피애착 차원)이 사람들에게 향함(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문제를 다루는 임상장면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내담자가 불안정애착이 형성됐다고 여겨지는 경우, 내면에 거절 받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자리 잡은 주된 정서인 '수치심'을 자각할 수 있게 돕고, 상황에 적합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을 억압하고 갈등하는 원인을 찾고 정서표현훈련을 한다면 대인관계문제가 개선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며, 대인관계 문제 역시 전 연령대가 겪는 이슈라고 생각하여 성인중기까지 대상을 확장시켜 좀 더 일반화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므로 측정방법에 제한점이 있다. 질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으로 인한 반응축소, 문항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면담이나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문제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애착이론에만 초점을 두어 그 과정을 설명했다는 것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성인애착의 차원에 따라 대인관계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지만 매개하는 변인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불안애착 차원과 회피애착 차원의 성격이 다르고, 대인관계문제 유형 역시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매개변인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따라 더 최선의 매개변인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오프라인 조사방법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으나 한계점도 있었다. 이지영(2005)의 온라인조사와 오프라인조사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예측 타당도 비교 결과,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온라인 조사 방식이 오프라인 조사 방식에 비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타당도의 경우는 두 조사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설문지를 오프라인

으로 조사하여 심리학연구에서의 온라인조사
와 오프라인조사의 데이터품질 비교하여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
학. 학지사.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
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은화 (2011). 성인기 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심리
학 석사학위논문.
- 김후자, 김정남, 김영숙, 신정자, 서길희 (2001).
전문직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수문사.
- 박봉수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통합적 영성의 조절효과. 가톨릭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2005). 애착의 회피-불안 차원에 따른
우울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장희, 조운주 (2006).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
착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44(7), 113-124.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 안봉화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
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
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석 (2014).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게임중
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
녕감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연규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유정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
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 연구*, 9(2), 353-
373.
- 이지영 (2005).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정서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학지
사.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조영미 (2012).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
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묵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9(3), 133-153.
- 최입정 (200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심리*, 21(4), 71-89.
- 한경희 (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지선 (2013).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과잉활성화, 정서 비활성화, 외로움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den, L. E., Wiggins, J. S.,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usubel, D. P.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2(5).
- Bagozzi, R. P., Heatherton, T. F. (1994). A general approach to representing multifaceted personality constructs: Application to state self-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35-67.
- Bagozzi, R. P.,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 45-87.
- Benedict, R. (1946). *The dorysanthemum and the sword*. Boston: Houghton Mifflin.
- Berry, K., Wearden, A., & Barrowclough, C., & Liversidge, T. (2006). Attachment sty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sychotic phenomena in a non-clinical studen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707-71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1969)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Health Communication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rview. In J. A. Simpson.,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Briere, J., & Runtz, M. (1988). Symptomatology

- associated with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in a non-clin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12, 51-59.
- Cheung, G. W., Lau, R. S. (2007).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296-325.
- Collins, N. L.,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rickson, E. H. (1950, 1963). *Childhood and Society*. secon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orporated.
- Fraley, R. C.,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to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77-114.
- Gilbert, P., Allan, S., Goss, K.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I,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7, 719-822.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49-560.
- King, L. A.,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e Press.
- Locke, K. D. (2008).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approach and avoidance goals in everyday couple interactions. *Personal Relationships*, 15, 359-374.
- Main, M., Kaplan, N.,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n the societ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209), 66-104.
- Mikulincer, M.,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ential social psychology*, 35, pp.53-152. New York: Academic Press.
- Mongrain, M., Vetteese, L. C. (2003). Conflict

-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4), 545-55.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Mahwah, NJ: Erlbaum.
- Spero, M. H. (1984). Shame: An object-relational formulation. *Psychoanalytical Study of the Child*, 45, 377-409.
- Tabachnick, B. G.,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New York: Allyn & Bacon.
- Tangney, J. P.,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omkins, S. S. (1963). *Affect/Imagery/ Consciousness: Vol. 2.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 Yourman, D. B. (2000). Internalized Shame, representation of the supervisory process, and trainee perception of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Dissertation thesis (ph.D.), Columbia University.

1차원고접수 : 2017. 10. 13.
수정원고접수 : 2017. 12. 01.
최종게재결정 : 2017. 12. 05.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 between Anxiety-Avoidance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A Heo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with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s mediating variables. For this purpose, a sample of 441 adults aged between 20 and 50 years(218 men and 223 women) were asked to complete the 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ECR-R), Internalized Shame scale(I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AEQ), 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online. First,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moving toward people(dependent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the results of the association between avoidance attachment and moving away from people(independent interpersonal problem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s well a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significant.

Key words :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